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

노원여성회 지음

이 책은 2020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을 함께 하고 원고를 작성해 주신
노원여성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퍼내는 말

반갑습니다,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입니다! ... 6

서울여성회 소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꿈꾸는
서울여성회를 소개합니다! ... 10

서울여성회 인터뷰

용기, 열정, 연대의 힘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길 바라며
[인터뷰]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 ... 16

노원여성회 연혁

노원여성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 24

노원여성회 활동

서울여성회와 함께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 40

언니들의 교육활동 ... 50

언니들의 정책활동 ... 53

언니들의 조직활동 ... 58

언니들의 홍보활동 ... 63

언니들의 회원활동 ... 73

언니들의 성장활동 ... 76

언니들의 소모임 ... 81

언니들의 네트워크 ... 84

함께해요, 우리

내가 노원여성회를 Pick 한 이유!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와 함께 해요! ... 90

반갑습니다,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됩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했던 세계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힙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 인권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러 가서 “우리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답이 “성ियो”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청원 게시글 중 20만 명 이상 동의한 글의 39.8%, 즉 10개 중 4개가 젠더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간 젠더이슈가 한국사회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젠더이슈 청원글의 주요 키워드 추출 결과, 성매매, 성폭행, 성폭력, 성범죄, 불법촬영 등 여성폭력·안전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 아기, 보육 등 돌봄과 일·생활균형 관련 단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원여성회는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그 차별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힘을 뭉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뭉치면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꿀 힘이 세지니까요.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놓고 우리 사회구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며 그렇기에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나만 성차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노원여성회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인 노원여성회의 탄생과 2020년까지의 활동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노원여성회의 바람은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자체로 온전히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담은 노원여성회의 활동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노원여성회는 앞으로도 언니들의 연대가 필요한 언니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 것입니다. 언니들의 연대가 필요한 현장으로 달려가 함께 어깨동무할 것입니다.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노원여성회 회장 박미경 드림



서울여성회 소개

노원여성회는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입니다.
이에 노원여성회를 소개하기에 앞서
서울여성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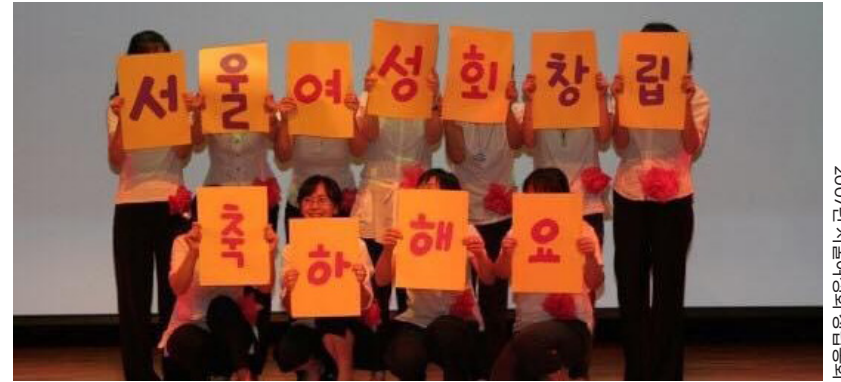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꿈꾸는
서울여성회를 소개합니다!



2018년 서울여성회 정기총회

서울여성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삶터와 일터의 주인인 여성의 자기 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 실천, 평화 실현 및 폭력과 전쟁 없는 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회는 지역과 여성 의제의 교차점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과 만나 여성주의를 전파하는 활동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 시민단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몇몇 사람이 모여 2006년에 준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강좌 사업 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모임을 알리고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7일에 창립했습니다.



2007년 서울여성회 창립총회

혹시 앞사람이 뭔지 아시겠나요?

쉽게 말하면 발기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 실제 단체 설립에서 주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 자체의 어감을 바꾸고자 서울여성회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앞사람 모임은 서울여성회를 움트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여성회 지부 얘기를 할까요? 서울여성회 지부 건설은 서울여성회 창립 시기부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서울여성회는 창립 시 이미 300여 명의 회원을 조직해 출발했는데, 여성은 대부분 '지역'에 있었고, 지역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막연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300여 명의 회원을 지역별로 나눠서 자치구별 모임이나 권역별 모임을 해야 하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부 건설이라는 건 해당 지역에서 여성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주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기에 실제로 첫 지부를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립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여성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회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3년 말, 서울여성회 부설 언니네작은도서관을 건설하고, 도서관의 많은 회원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첫 지부인 영등포여성회가 만

들어졌습니다. 도서관에 찾아오는 많은 여성의 고민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노동 전담, 그로 인한 고립감 등…….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지역 여성회 건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고, 여러 초동 주체가 몇 차례 준비모임을 가진 후 2015년 총회에서 영등포여성회가 인준을 받게 됐습니다. 노원여성회는 2016년 서울여성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여성회 지부에는 노원, 동서울(강동, 광진, 송파), 영등포, 특별지부가 있고, 특별지부는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입니다.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하면서 자치구별로 여성들을 만나 다양한 성평등 의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여성아카데미



6회 서울여성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서울여성회는 다양한 교육 및 정책 사업과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여성아카데미와 서울여성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서울여성아카데미는 여성의 성장을 위한 교육 자리로 페미니즘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4회차 정도의 강의와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부가 건설된 후에는 지부별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문화축제는 지역에서 서울여성회가 지향하는 여성주의를 문화로 풀어내는 축제입니다. 그동안 여성과 역사, 노동, 안전, 몸, 연애, 여성폭력, 성교육 등 매년 다른 주제를 축제 형태로 풀어왔습니다. 창립 직전인 2007년 6월 5일에 청계천에서 '1회 서울여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올해 14회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여성회는 부설기관인 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성평등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다른 부설기관인 언니네작은도서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고, 이것저것 살거리, 볼거리가 많은 시장 골목을 지나 한 허름한 건물 꼭대기 층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문을 열면 처음 나를 반기는 것은 예쁜 봉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는 화단이었다. 그 옆으로는 평상이 있고,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주었다. 거기에서 여성회 언니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기타를 쳤다. 진지하게 토론하며 올바른 성교육에 대해 고민했다. 여성으로서 어렵고 힘든 삶을 나누며 함께 눈물 짓고 힘을 주고받았다.”

- 서울여성회 회원 이지희

“여성을 둘러싼 수많은 의무와 규정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혼자서는 어디 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막막해 하던 나에게 서울여성회는 손을 내밀어주었다. 그렇게 서울여성회와 함께 한 시간도 벌써 14년이다.”

-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여성회 회장 조민옥



용기, 열정, 연대의 힘으로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길 바라며

인터뷰_윤미영(서울여성회 사무처장)



윤미영 사무처장님은 서울여성회 대표 사업인 서울여성문화축제를 1회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반 소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2007년 1회 서울여성문화축제에서 사회를 보고, 전반 기획을 진행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축제를 진행해 왔어요. 사회만 최소 8~9번 이상 봤을 거예요. 서울여성회 축제문화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축제 전반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었고, 통기타 동아리를 하면서는 공연 무대에도 여러 번 섰어요. 가장 애정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2008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 6개월 정도 병가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병가 마치자마자 축제 준비에 결합했으니까요.

지금도 축제의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나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의 모습도 생생해요. 초반에는 청계광장, 대학로, 홍대 이런 곳에서 시민을 만났었고,

언니네작은도서관 건립 즈음부터는 영등포에서 주민을 만났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영화와 GV를 결합한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서울여성회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축제의 상도 함께 변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성교육, 그 다음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부스와 GV 등을 진행했어요.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한 틈에 진행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 됐죠.

서울여성문화축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주년 때는 서울광장에서 할 거야!' 이런 포부도 있었는데 지금은 '20주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문화축제가 하루로만 펼쳐지는 게 아닌 1년의 흐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런 사업기획을 했는지 궁금해요.

서울여성문화축제는 처음 기획할 당시부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여성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이슈를 가지고 시민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회원의 손으로 함께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여성문화축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여성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축제라는 형식에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회원의 참여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회원에게도 각별한 사업일 거예요. 아마추어 여성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었습시다.

그러다 보니 매년 축제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일련의 사업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여성폭력'으로 축제 주제를 정하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거나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여성폭력을 중심으로 영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축제를 만드는 식인 거죠.

서울여성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1회 때부터 축제날만 되면 그렇게 비가 왔어요. 축제 시작 직전까지 폭우가 내린 적도 있었고, 축제 내내 폭우가 그치지 않아 무대 위로 천막을 올려서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매년 축제할 때마다 ‘제발 비만 오지 마라!’ 하며 바라기도 했었는데요. 원래는 7월 초에 축제를 열었어요. 성평등주간이기도 하고, 서울여성회 창립일도 있어서 그때 했는데, 하도 비가 와서 가을로 축제를 옮겼어요.



언니네작은도서관

부설기관인 언니네작은도서관은 그 시작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니네작은도서관은 지부 건설을 위해 내딛는 첫발 같은 것이었어요. 2010년 즈음 영등포에서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5인 이상의 부모가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성평등마을아카데미, ‘아동성폭력 예방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와 같은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어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시작했고, 영등포 전 구역을 대상으로 CPTED 기반의 지역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해서는 CCTV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작은도서관과 같은) 만남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CPTED 개념을 적용해 동네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자고 결정했죠. 영등포에서도 이런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림동을 선정해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어요.

언니네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상근활동가와 회원 20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매일 동네를 돌며 도서관 준비위원 모집 사업을 했어요. 이 동네에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1천 원 이상의 후원금, 재능 기부나 책 기부, 정기후원 등을 약속하면 준비위원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모인 준비위원이 612명이었습니다.

이때가 2013년인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서울여성회 공간도 대림동으로 이사했어요. 이사준비, 이사과정도 이야기하자면 많은 감동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웃음)

어쨌든 이 작은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소문이 나면서 신문이며, 라디오에 소개도 많이 됐어요. 초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웃음)

시민단체, 그것도 여성단체가 특별한 지원 없이 회원의 회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상근활동가의 인건비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상근활동가의 헌신과 열정이 없다면 아마도 단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근활동가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성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아주 고되고도 빠센!)을 거쳐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회원과 후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여성운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등포여성회를 만들고 총회에서 인준받던 날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네작은도서관과 서울여성회는 저에게 은인이예요. 저는 진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을 다시 찾게 돼서 너무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 엄마가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고, 뭐든지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언니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나의 삶과 우리의 활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해야만 하는 온갖 역할들과 요구를 넘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공지와 가슴 뜨거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성운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울컥)



영등포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참고 영상



서울여성회 영화봤습니다



서울여성회 페미니즘 캠프



서울여성회 페미모여이수

서울여성회는 이런 여성운동 단체야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신다면?

서울여성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알아봐 주고, 함께 빛나기 위해 노력해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바꿔 나간다는 공지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여성회예요. (이번에는 질문자가 울컥)

서울여성회가 꿈꾸는 세상에 대하여

서울여성회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연대하고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성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14회 서울여성문화축제

노원여성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서울여성회는 각 지부를 통해 서울여성회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회는 회칙에 지부 신설과 관련해 ▲본 단체의 지역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여성회 지부를 둔다 ▲지부의 공식명칭은 ‘서울여성회 지부 ○○(지역명칭)여성회’로 한다 ▲지부 설치는 10인 이상이 운영위원회에 요청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며, 지부 준비위원회 및 간부인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지부는 자체 운영위원회 및 간부를 둘 수 있으며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 등 자체 재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회 회원 중 노원에 살거나 활동하는 회원들 중 몇몇이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박지아 서울 여성회 부회장과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 건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서울여성회 기획강좌
서울여성회가 노원에 떴다



노원여성회 신입회원 인증샷(김원숙, 이명)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원여성회(준) 명의로 서울여성회 기획강좌를 열었습니다. 서울여성회가 노원에 떴다란 강좌명으로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해’와 ‘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성교육의 모든 것’이라는 두 번의 대중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여성회(준) 송년회를 열어 이후 지부 건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서울여성회 기획강좌 서울여성회가 노원에 떴다
노원여성회(준) 송년회



2016년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추악 행위 (무지컬 > 벨라 > 보기)



2016년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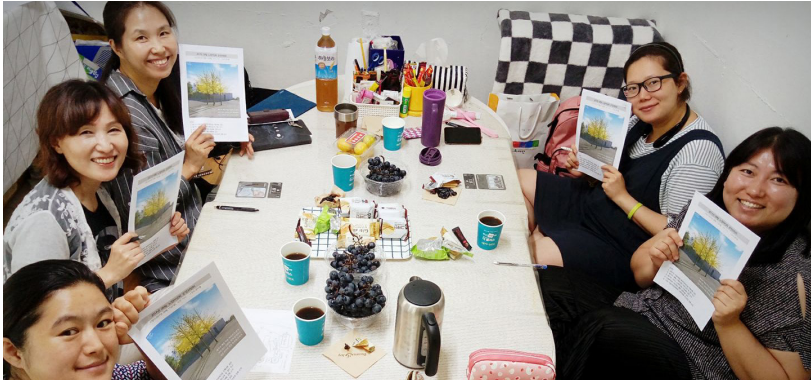
2016년 노원여성회 송년회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는 2016년 3월 19일 언니네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회 정기총회에서 인준됩니다. 서울여성회 회칙에 따라 노원여

성회 회원 권순실, 김미라, 김현숙, 박명선, 박미경, 원정하, 이명, 이미진, 이인희, 이지희 등이 서울여성회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총회에서 인준됐습니다. 노원여성회 회장으로는 차기 서울여성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미경 회원이 노원여성회 회장으로 인준됐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인준받고, 노원여성회는 1회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여성회가 표방하는 여성주의를 노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을 통해 전파한 것인데요. '외모지상주의, 섹슈얼리티, 성폭력, 성평등'에 대해 입장을 세우고 실천을 토론하는 과정, 그리고 수료하면서 성평등한 노원을 위해 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결심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은 각 회원들이 여성으로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여성주의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 1회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
-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 노원여성회 회원의 날
-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2017년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2017년 8월 노원여성회 월례모임



2017년 2회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

2017년 젠더거버넌스 활동이 서울시 협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노원여성회도 시작했고요. 젠더거버넌스는 성인지 관점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2016년에 이어 2회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을 진행했고요. 서울여성회가 진행하는 서울여성문화축제에서 부스 하나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 2회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
-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 서울여성회 서울여성문화축제 노원여성회 부스 운영
-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 노원여성회 월례모임
- 노원여성회 송년회



2018년 노원여성회 신년모임(뮤지컬 <빨래> 보기)



2018년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2018년 노원여성회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식

2018년은 노원여성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에 함께 하면서 서울시동북권지역 젠더의제 활동가들과 3·8세계여성의날, 성평등주간,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 등에 공동행동을 진행하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원여성회의 활동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활발히 벌이는데요. 노원노동복지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은 원래 정원 30명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활동가 및 주민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수강신청을 66명이나 하셨고요. 그런데 장소 수용인원이 최대 51명이라 51명이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매 3시간씩 총 14강의 교육과정을 80% 이상 출석하고 시강해야 수료가 되는데 36명이 수료하는 높은 수료율을 보이셨고요. 후속모임에 26명이 함께 하시기로 했고, 서울여성회 신입회원으로 23명이 가입하셨습니다.

더불어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및 실무역량강화교육, 회원 신년모임 및 월례모임을 통해 간부들의 역량과 회원들의 친목을 높이는 해였습니다.

- 성평등주간 기념 노원여성회 인권영화 상영회
- 노원여성회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 [노원여성회·노원노동복지센터 공동주관]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 노원여성회 운영위원회 실무역량강화교육
- 노원여성회 신년모임 - 뮤지컬 <빨래> 보기
- 노원여성회 월례모임
- [노원여성회·노원노동복지센터 공동주관] 인문학강좌



2019년 노원여성회 신년회



2019년 노원여성회 테백사막모임 2팀 기념



2019년 노원여성회 활동공유회 및 '깨다' 발간전지

2018년에 양성된 노원여성회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들 중 23

명이 노원여성회로 가입하면서 노원여성회는 이 해에 노원여성회 회원성장 캠프를 진행합니다. 1강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서울여성회 역사로 본 여성의 삶', 2강 '역사를 통틀어, 익명은 여자였다-민주주의와 인권을 앞당긴 여성운동', 3강 '두고 보시오, 이제 여자들이 산을 움직일 테니-서울여성회 여성주의를 말한다'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노원여성회 회원성장 캠프는 회원들이 서로 만나 사귀고, 각자의 성장을 만드는 시간으로, 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나'를 찾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는 새로운 꿈을 그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가 끝난 후,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모임이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지역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한 학습과 강의교안 작성에 집중하고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교육활동가로서의 역량을 다졌습니다.

또한 이 해에는 의미 있는 새로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노원노동복지센터와 함께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해,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조직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요. 또 하나는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를 발간합니다. '깨다'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며 평등하기를 바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말과 행동이 공존하는 지면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고요. '깨다'를 본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2018년이 노원여성회 간부들의 역량과 회원들의 친목을 높이는 해였다면, 2019년은 노원여성회 소모임을 시작해 회원들이 더욱 옹기종기 만날 수 있는 해였는데요. '천연제품 만들기'와 '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82년생 김지영>이 만나고 싶은 성평등 그림책 강좌를 통해 노원여성회가 그림책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 강좌를 기반으로 2020년에 노원여성회 소모임 '언니들의 그림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원여성회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모임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노원여성회·노원노동복지센터 공동주관]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소식지 배포 활동
 노원여성회 아파트청소노동자조직팀
 노원여성회가 페미니즘 잡지를 만듭니다 교육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82년생 김지영>이 만나고 싶은 성평등 그림책 강좌
 노원여성회 집행위원회
 노원여성회 홍보역량강화교육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
 노원여성회 신년회
 노원여성회 월례모임 '원 데이 클래스'
 노원여성회 활동공유회 & '깨다' 발간잔치
 노원여성회 태백산맥모임
 노원여성회 소모임 '천연제품 만들기'
 노원여성회 소모임 '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2020년



2020년 노원여성회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취업 개선을 위한 모임



2020년 노원여성회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 숲 힐링그림책모임



2020년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

원여성회는 사람을 만났고 모임을 남겼습니다.

2020년의 시작은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은 홍보하자마자 신청이 쇄도했고, 2019년 한 해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을 준비한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들이 든든하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성인팀은 그 필요와 욕구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회원 학습모임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해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로 만났고, 그 만남은 직장여성대나무숲모임과 청소년페미니즘모임으로 남았습니다. 2019년부터 시동을 걸었던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도 매월 1회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기획특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6~7세 어린이 성교육 이렇게 하세요’, ‘학교 성교육 다시 쓰기’, ‘노원여성들, 분노를 쓰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님과 함께 하는 책 <김지은입니다> 함께 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전 지부가 함께 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여성회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성교육책과 어린이 그림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구요. 노원여성회도 10명의 성교육책 오프라인 모니터링단과 또 다른 10명의 어린이 그림책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노원여성회 회원모임도 안착화됐습니다. 우선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를 분기별로 진행해 노원여성회 사업 및 활동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구요. 노원여성회 회원들은 노원여성회가 이렇게 멋지고 많은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많이들 응원해 주셨고 지지도 해주셨습니다.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노원여성회 소모임

중 ‘언니들의 그림책’은 신청을 받자마자 곧 마감되는 아주 인기 있는 소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마무리 활동은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2·3호 코로나 합본호 발간이었습니다. ‘깨다’ 2·3호 코로나 합본호에는 여성이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회를 향한 많은 실천들을 담았습니다.

- 서울여성회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 서울여성회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기획특강
- 노원여성회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 서울시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기획특강
-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모임
-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기획특강
- [노원여성회·노원노동복지센터 공동주관]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소식지·마스크 배포 활동
- 노원여성회 아파트청소노동자조직팀
-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 활동
-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 기획특강
- 노원여성회 직장여성대나무숲모임
- 노원지역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 노원여성회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 노원여성회 집행위원회
- 노원여성회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
- 노원여성회 월례모임 ‘월간 숨’
-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노원여성회 태백산맥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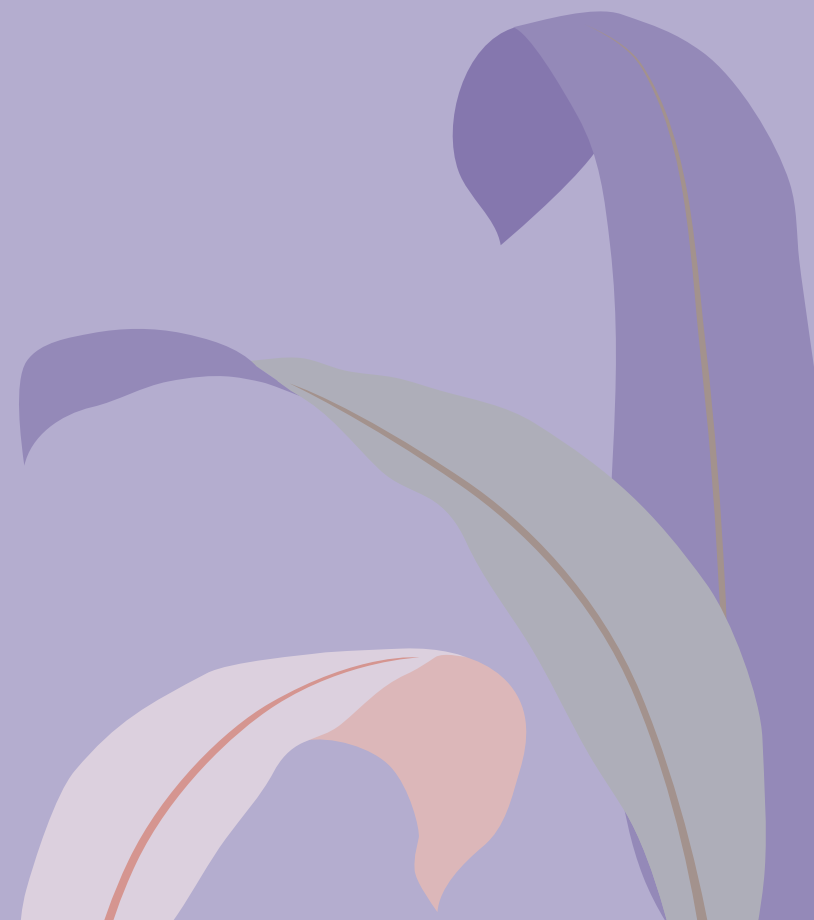
노원여성회 역사세미나모임

노원여성회 소모임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노원여성회 소모임 '언니들의 그림책'

노원여성회 소모임 '영리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이렇게 노원여성회는 언니들의 교육활동, 정책활동, 조직활동, 홍보활동, 회원활동, 성장활동, 소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동북권 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노원공동행동,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우리만나 등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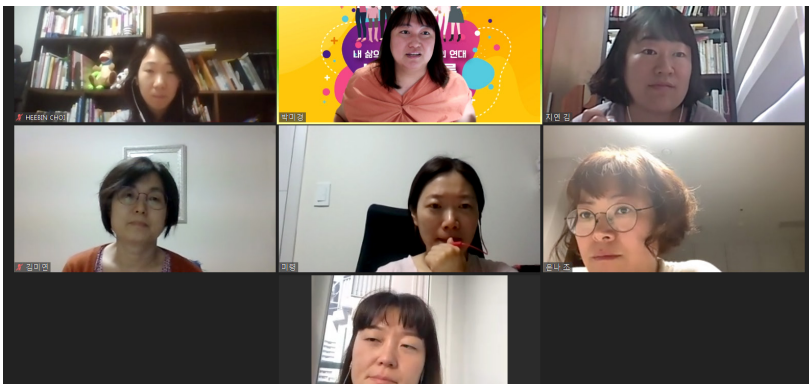


서울여성회와 함께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



2020년 서울여성회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노원여성회 오프라인 모니터링단



2020년 서울여성회 여성인권으로 본 어린이책 모니터링 및 개선 사업-노원여성회 온라인 모니터링단 (Zoom상회의)

한국은 몇 차례 굵직한 성범죄 문제를 겪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성교육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에 아동성폭력 사건이 집중 보도되면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제도가 강화됐다. 여기에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과 여성혐오에 대한 논쟁, 2018년 미투운동과 스킵 미투, 불법촬영과 웹하드 카르텔, 주요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 2019년 텔레

그램 N번방 사건을 거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인권의식과 성평등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그림책과 성교육 교재에도 반영되고 있다. 근래 나온 책들을 보면 확실히 예전에 나온 책들에 비해서 내용적 변화가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되어 연령별, 성별, 심지어는 몸과 마음을 구분하여 다종다양한 교재들이 출판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게끔 하는 책조차 등장하고 있다.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성교육을 목적으로 출판된 책 판매량도 적지 않다. 성교육을 목적으로 기획된 책이 아니어도 인권이나 평등, 성에 관한 인식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책과 교재도 다수 발견했다. 여기에 성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한다면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서울여성회 성교육 교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중에서

서울여성회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올해 성평등 시각에서 그림책과 성교육 책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들을 기준으로 96권을 선정했고 서울여성회 전 지부가 참여해 37명의 모니터링단이 함께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성교육책을 성평등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몸, 성, 성폭력, 성평등' 네 가지 내용을 다룬 책의 글이나 삽화에서 '자기 존중과 다양성 인정', '성에 대한 인식',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 '폭력예방', '연령적합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분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 외 기타 부분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지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책에 대한 총평을 내리며 추천도서인지, 비 추천도서인지, 해당 사항이 없는지를 분류했습니다. 추천도서는 '몸, 성, 성폭력 예방, 성평등' 네 가지 파트로 분류해 팸플릿으로 제작했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도 자료집으로 제작했습니다.

서울여성회 PICK! 성교육 추천도서 LIST!

1) 다양하고 소중한 몸

우리 몸은 다양하다. 그리고 소중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꾸 마른 몸, 커다란 몸, 여자다운 몸, 남자다운 몸 등으로 구분 지으며, 한 가지 기준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성교육에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몸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몸에 대한 책을 고를 때>

- 몸과 성을 다룰 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글과 삽화에서 특정한 몸과 성만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추천도서목록> 노란색 : 강력추천 / 추천이유

	책제목	책정보	추천내용
유아, 초저	괜찮아	최숙희 지음 웅진 주니어 출판	스스로를 긍정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고 느껴진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높여준다.
	넌 (안) 작아	안나강 지음 크리스토퍼 와이엔트 그림 김경연 옮김 폴빛 출판	작고 크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내 몸, 네 몸	아이코리아 편집부 엮음	
초고, 중등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 지음 멜리사 강 지음 제니 래섬 그림 김선희 옮김 아웃박스 해설 다산어린이 출판	생리에 대해 생물학적 지식과 함께 생리를 바라보는 관점, 상황별 대처 팁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터부를 깨고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이자 순환과정으로의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냐 르네 테일러 지음 김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출판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스콧 토드넘 지음 김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출판	

2) 자연스럽게 당당한 성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이며,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이 '모두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성 욕구는 어른의 것, 남성의 것, 비장애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성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많은 경우 성에 관한 정보를 왜곡해서 접하게 되거나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어

럽다.

성교육에는 성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당당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에 대한 책을 고를 때>

- 성을 자연스럽게 당당한 것으로 인식한다.
- 글과 삽화에서 특정한 몸과 성만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공포 등을 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이중 잣대)를 강조, 강요하지 않는다.
-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을 강조, 강요하지 않는다.

<추천도서목록> 노란색 : 강력추천 / 추천이유

	책제목	책정보	추천내용
유아, 초저	엄마 씨앗 아빠 씨앗	티에리 르냉 지음 세르주 블로크 그림 권순영 옮김 파랑새 출판	아기가 어디서 나오지? 아이들의 다양한 상상을 친근한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기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쉽게 담 겨 있다.
	엄마가 알을 낳았다!	배빗 콜 지음 고정아 옮김 보림 출판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알려주는 솔직 담백한 임신과 출산 이야 기!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려준다.
초고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헤리스 지음 마이클 엠벌리 그림 주은희 옮김 다섯수레 출판	덤덤하면서도 사실적인 그림으로 몸과 성, 성폭력,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학 생들 입장에서 쉽게 해설하고 있는 책이다.
초등	나도 엄마 배 속에 있었어요?	다그마 가이슬러 지음 김시형 옮김 풀빛 출판	

청소년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지음 나선숙 옮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감수 예문 아카이브 출판	
	Girls' Talk 걸스 토크	이다 지음 시공 주니어 출판	

3) 성폭력 예방하기

<성폭력에 대한 책을 고를 때>

- 성과 관련된 폭력의 근본 원인을 ‘참을 수 없는 성 욕구’에서 찾지 않는다. 성폭력은 위계와 힘, 권력의 문제임을 정확히 지적한다.
- 다양한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내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공포 조장으로 성폭력 심각성을 해설하지 않는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지 않는다.
- 피해자를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 수동적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 가해자를 특별한 계층, 나이, 직업, 인종으로 묘사하거나 악마화하는 등 고정된 이미지로 그리지 않는다.
-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 제대로 해결한다면 성폭력은 치유 가능한 일임을 알려준다.

<추천도서목록> 노란색 : 강력추천 / 추천이유

	책제목	책정보	추천내용
초등	내가 안아줘도 될까?	제이난 샌더스 지음 세라 재닝스 그림 김경연 옮김 폴빛 출판	다양한 신체접촉과 관계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토론과제도 있어 선생님이나 양육자가 함께 읽어도 좋은 책이다.
	슬픈 란돌린	카트린 마이키 지음 아테데 블라이 그림 문학동네 출판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도움요청 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요 청하기'다. 성폭력은 적극적으로 올바른 해결을 통해 치유될 수 있 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청소년	유진과 유진	이금이 지음 밤티 출판	성폭력 경험을 가진 두 유진, 성 폭력에 대한 기억은 너무 아프니 잊어버리면 되는 걸까?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을 멈추고 '제대로' 성폭력 사건 을 해결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4) 행복한 성을 위한 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에서 서열을 매기면서 다르게 대우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한다.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평등 교육의 시작이다.

<성평등에 대한 책을 고를 때>

- 몸과 성을 다룰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 글과 삽화에서 특정한 몸과 성만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이중 잣대)를 강조, 강요하지 않는다.
- 우리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실제와 너무 다른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성역할고정관념을 강조, 강요하지 않는다.

<추천도서목록> 노란색 : 강력추천 / 추천이유

	책제목	책정보	추천내용
유아, 초저	여자 남자, 할 일이 다르 정해져 있을까요?	나카야마 치나쓰 지음 야마시타 유조 그림 고향옥 옮김 고래이야기 출판	다양한 물고기를 통해 여자다음, 남자다음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초고	성평등	정수임 지음 홍지연 그림 서유재 출판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을 만한 사 례들을 통해 성평등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 참정권, 유 리천장, 노키즈존까지 다양한 젠 더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녀와 소년, 멋진 사람이 되는 법	윤은주 지음 이해정 그림 서한솔 감수 사계절 출판	일상 속에서 성차별, 성역할고정 관념에 돌직구를 날리는 책이다. 성별로 결정되거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초등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지음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 출판	
	달라도 친구	허은미 글 정현지 그림 웅진주니어 출판	
	권인숙 선생님의 어린이 양성 평등 이야기	권인숙 지음 민재희 그림 청년사 출판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초등성평등연구회 지음 이해정 그림 우리학교 출판	

초등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텔 팀 지음 루시 구티에레스 그림 김정하 옮김 풀빛 출판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이혜진 글 파라주니어 출판	
	초보자를 위한 페미니즘	누리아 바젤라 지음 안토니아 산돌라야 그림 박도란 옮김 시대의창 출판	

치마를 입어야지, 아멜리아 블루머!	새너 코리 글 체슬리 맥리렌 그림 김서정 옮김 아이세움 출판	성차별에 맞서 싸운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 책이다.
불평등과 싸우는 여성 대법관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조너 윈터 지음 스테이시 이너스트 그림 차익종 옮김 두레아이들 출판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알려진 법과 과학 분야에서 성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이야기 책이다.
마리 퀴리	이렌 코엔-징카 지음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이세진 옮김 그레이트북스 출판	

5) 불평등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

서울여성회는 성교육 교재 모니터링을 몸, 성, 성폭력예방, 성평등,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진행했으며, 이 파트에서 소개되는 책은 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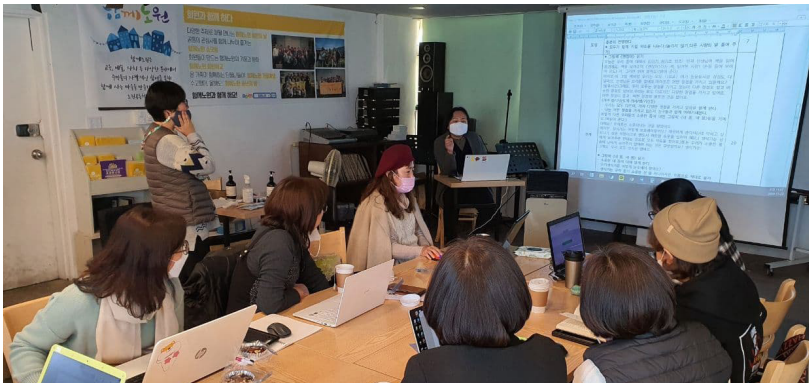
책제목	책정보	추천내용
꽃할머니	권윤덕 지음 사계절 출판	일본 식민지 시대, 어떻게 여성들이 전쟁의 '성노예'가 되었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한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잡는 싸움을 한 인권활동가의 이야기 책이다
평화의 소녀상	윤문영 지음 잉윤진 옮김 내인생의책 출판	
세상을 바꾼 아주 멋진 여성들	케이트 팅크허스트 지음 니모 옮김 머스트비 출판	성차별에 맞서 싸운 역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 책이다.

언니들의 교육활동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교육활동가모임, 찾아가는 성인권교육,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2018년 노원여성회



2020년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
연말정리교육 - 6·7기 어린이 성인권 교육

노원여성회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하는 활동은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차별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원여성회는 이런 교육활동을 할 교육활동가를 양성

하는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노원여성회 교육활동가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4차시로 진행하며 진행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시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내용
1. 몸	생식기관의 각 명칭과 기능을 배우고,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의 몸을 맞추려 하거나 타인을 외모를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차별과 폭력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기관의 명칭과 기능 • 2차 성장으로 변화하는 몸, 월경과 몸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외모지상주의 개념 및 문제점 •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 : 다양한 몸, 소중한 몸
2. 성	성은 더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성에 대한 개념을 '건전한 성과 불건전한 성'으로 접근하기보다, 누구나 자신의 성욕구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성'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성'으로 다시 구분해 본다. 또한 '음란물'에 대해 성 그 자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폭력적인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 • '좋은 성 vs 나쁜 성'이 아닌 '행복한 성 vs 폭력적인 성'으로 구분하기 • 음란물의 문제점 이해하기 •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성폭력 예방	<p>폭력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 교육은 아이들 스스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제로 아이들이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성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좋은 접촉인지, 나쁜 접촉인지 구분할 수 있게 자신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성폭력은 힘과 권력을 이용한 폭력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요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성폭력의 잘못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과 성폭력 •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에 대한 나의 느낌 구분하기 • 아동성폭력의 특징, 성폭력 예방 키워드 • 성폭력 피해자 공감하기: “네 잘못이 아니야”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움 요청하기’의 중요성
4. 성평등	<p>앞의 세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을 되짚어보며 외모, 성, 성폭력 피해에서 어떻게 ‘성차별’이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차별에서 핵심적인 것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통해 차별은 계속 발견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 성역할고정관념 인식하기, 사례 나눔 • 성차별 현실 인식과 대안 찾기 • 성평등의 중요성

노원여성회 활동

언니들의 정책활동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2020년 노원여성회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 전체회의



2018년 젠더거버넌스 환류 간담회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에 의거해 시정 전 분야 주요 사업 정책수립에서 집행·평가까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주류화정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2016년까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의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젠더거버넌스 간담회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

서 자문에 따른 정책제언 등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해 오던 '성주류화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는 2017년부터 시정의 성인지성 강화를 도모하고 성주류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논의대상을 시민사회로 확장해 지역사회 시민 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성인지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젠더거버넌스는 2017년 '서울시 협치사업 : 시민 참여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시정 성인지성 강화 기반 구축', 2018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 :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정책 만들기', 2019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2020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사업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이름으로 매년 200여 명의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현장활동가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원여성회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8명의 현장활동가들이 노원구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한 해의 시작은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점검, 평가,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젠더거버넌스 담당 주무관을 만나 상견례를 진행하고, 올 한 해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 계획과 대상의제를 선정하는 사전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사전간담회에서 4개의 대상의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데, 올해만 코로나19 상황으로 2개의 대상의제를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대상의제가 선정되고 나면 각 대상의제별로 성인지성 모니터링 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살펴보

고 지표에 맞춰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현장활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사후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언을 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성인지성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원구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제안활동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대상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참가한 현장활동가	대상의제
2017	박미경, 조은나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
	원정하, 이지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김영복, 신용숙	2017년 학생 진로·창업 한마당
	류용희, 이범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인큐베이팅
2018	박미경, 임수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운영
	이지희, 최영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서미화, 이범자	노동복지센터 운영
	김현숙, 김형숙	금연지원 서비스
2019	박미경, 임수진	2019년 노원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김영미, 조은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김형숙, 이지희	서울가족학교 운영
	김현숙, 이범자	어르신건강돌봄사업
2020	박미경	양성평등위원회 분석
	김슬기, 이범자 정선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물 분석
	김현숙, 김형숙, 이지희, 임수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석

노원여성회는 그동안 자치안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일자리경제, 보건, 건강, 여성, 육아·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사업의 성인지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자치안전 영역에서는 ‘일반주택지역 범죄제거화사업’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여성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경제 영역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7년 학생 진로·창업 한마당’,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인큐베이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나 직업구분 등은 없는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안은 잘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 및 건강 영역에서는 ‘어르신건강돌봄사업’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아·보육 영역에서는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서울가족학교’ 및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모니터링해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거나 가정 내 역할을 한정짓고 있는 않은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했으며, ‘노원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모니터링하며 성인지 관점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었는지, 25개구 공통과제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분석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변화의

흐름이 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노원여성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 성평등정책 제안활동을 일상적으로 펼쳐 나가 성평등한 노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언니들의 조직활동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조직 및 운영,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 운영,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진행, 노원여성회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운영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조직 및 운영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2020년 노원여성회

2019년 8월 노원여성회와 노원노동복지센터가 함께 노원구 아파트 청소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은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에서 용역을 준 청소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차휴가를 쓴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노동자 본인에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그 사람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을 알게 된 후, 노원여성회와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11월,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몇 차례의 기획단 회의 후, 2019년 12월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2020년 5월에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절실한 아파트 청소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2020년 첫 모임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매월 1회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을 진행했고, 모임에서는 노동법 교육 및 천연 버물리밤 만들기 등 윈 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2차로 마스크와 소식지를 배포했습니다.

2021년부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단체가 변경되면서 2021년부터는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지원을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임문의 : 박미경 노원여성회 회장 010-2888-6196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 운영



2020년 노원여성회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 모임 뒤편

우리 사회 성차별은 일상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 존재합니다. 그중 일터에서 성차별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고용이 단절되고 재취업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배치되면서 성별임금격차 등의 성차별에 시달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고통받는 직장여성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해소할 마땅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원여성회가 그들의 '대나무숲'이 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원여성회는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동네 여

성노동자들 옆 대나무숲'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총괄 ▲여성노동자들이 특히,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젠더 관점으로 살펴 본 우리 회사 사규 ▲존엄한 여성노동자로 살기 ▲힐링그림책모임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권희정 미술치료사를 모시고 '미술 치유로 마음 똑똑,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진행했구요. 마지막은 기획특강으로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님을 모시고 '책과 함께 나누는 직장여성들의 이야기 : 김지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 김지은과 김지은, 우리들의 연대와 희망'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직장여성들은 이런 대나무숲이 있길 바랐습니다. 첫 모임 때 이런 모임이 정말 필요했고 소중한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모임에서 직장 내 성별임금격차나 성희롱 등이 직장 내 고충이기에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이나 상담을 하고 싶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것은 '관계'였습니다. 대나무숲에 왔던 직장여성들은 그런 관계에 대한 힘들을 풀어내고 힐링하는 시공간을 원했고 힐링그림책모임, 미술 치유로 마음 똑똑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길 원했고,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원여성회 직장여성대나무숲에 오고 싶은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모임문의 : 김슬기 노원여성회 집행위원 010-3108-2979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진행, 노원여성회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운영



2020년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우리 사회는 이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2018년 1월 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밝히고 JTBC 인터뷰를 하면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성들의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스쿨미투 운동도 활발히 전개됐고, 노원지역에서는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했습니다.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스쿨미투 운동은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됐고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꾸준히 이어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상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다움'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더욱 잘 진행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울

여성회 특별지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이하 서페대연)과 함께 공동주관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는 2일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8월 8일에는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오리엔테이션 ▲마음열기 및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강의] 페미니즘이란? ▲[토론] CF 속 성차별 사례 찾기 등을 진행하고, 8월 15일에는 ▲마음열기 및 아이스 브레이킹 ▲[강의] 바꿀 수 있어, 우리 결의 성차별! ▲[토론] 내가 겪은 성차별과 대응법 ▲[강의] 나답게, 우리답게! ▲[활동] 나다운 선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교육 후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청소년들은 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살았을 것이라며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을 캠프 마무리에 해서 모두 감동했고 울컥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은 청소년들은 노원여성회 청소년페미니즘모임에 오세요!

○모임문의 : 조은나 노원여성회 집행위원 010-5275-1470

노원여성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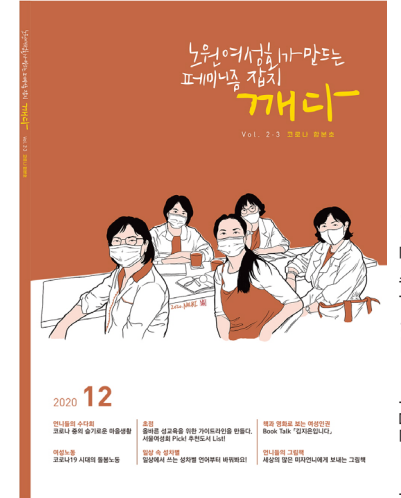
언니들의 홍보활동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노원여성회 밴드 및 블로그 운영, 뉴스레터 제작(2021년 예정)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2019년 '깨다' 창간호 표지



2020년 '깨다' 2.3호 코로나 특별호 표지



2020년 '깨다' 제작회의



2020년 노원마을미디어 온택트 토크쇼 #랜선해 언니들의 깨-잇수다



2019년 노원여성회 활동공유회 및 '깨다' 발간전차

노원여성회는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그 차별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정의합니다.

노원여성회는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며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말'과 '행동'이 공존하는 지면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깨다'는 이름처럼 차별을 '깨고', 차별을 낳는 구조를 '깨는' 실천하는 '깨다'가 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깨다' 창간호를, 2020년 12월에 '깨다' 2·3호 코로나 합본호를 발간했

습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주관으로 '2020 노원마을미디어 온택트 토크쇼 #랜선해'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는데요.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팀은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언니들의 깨-잇수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박미경 '깨다' 편집장 진행으로 강은지·조은나 '깨다' 기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터뷰 내용 공유합니다.

진행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강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은지입니다.

진행자: 네, 제가 강은지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면, 강은지 기자님은 '깨다'의 [언니들의 이야기] 코너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쓰고 계시고요. 창간호는 <한부모로 아이와 더불어 살기>, 이번 2·3호 코로나 합본호는 <헤어짐은 왜 '고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진행자: '깨다' 참여동기는 무엇인가요?

강은지: 노원여성회와 페미니스트의 만남이 '깨다'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때가 작년 여름 즈음이었고,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에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 잡지를 만듭니다"라고. 근데 당시에는 페미니즘이라는 건 너무 어렵다, 그냥, 어렵다, 라고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처음 마주한 페미니즘이란 다들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보고 너무 극명한 다른 관점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깐. 여러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잡지를 만든다는 글보다는, 현수막 하단에 '여성주의'라는 교육명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부분수강

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듣다가 맘에 안 들면 도망가도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했던 것 같아요. 또, 여성회 단체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어요. 결국 교육수강을 다 마치긴 했지만, 기자로서 잡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무려 페미니즘 잡지라는데. 그런 지식이나 역량도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교육과정 중간에, 그룹으로 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한 부모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깨다'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결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함께 하자고 격려한 게 사실 가장 큰 몫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기록하자고 결심하게 된 큰 이유는, 연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 '깨다' [언니들의 이야기]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에세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은자: '깨다'의 참여동기랑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새해가 밝으면, 햇수로 5년차 한부모인데요. 아직 병아리죠? (웃음) 한부모로서 사회의 첫 내딛음이 '깨다'에서 출발했던 만큼, 어디서든 한부모의 이야기나 목소리가 쉽게 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사에서도 '편부모'라는 잘못된 명칭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한 명의 양육자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이혼가정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나 내용들을 생각보다 쉽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제가 한부모임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을 때,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반응을 보이는 불편한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를 내려가면서 우리 아이도 '한부모자녀'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는 건, 이건 개인의 고정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관점에서 보아도, 동화책들이나 유아프로그램에 엄마와 아빠가 대부분 함께 나오거든요. 저희는 일상에서도

계속 차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인심 좋은 할머니가 아빠에 대해 계속 묻는다거나, 보육기관만 해도 부모가 아닌, 엄마와 아빠라고만 양육자를 단정지어 표현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한부모라서 나도 갖고 있는 차별을 깨고 나와야 하지만, 아이는 또 나와는 별개거든요. 그럼 이 5살 아이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에 마주하고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었고, 분명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테고, 한번은 얘기할 텐데 싶지만 대안을 공유하고 목소리 내는 당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디에선 누가 읽든, 안 읽든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침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당사자 외에도, 우리 이웃, 혹은 크게는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본인이 쓴 글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강은자: 제가 '깨다'에 처음으로 글을 실은 제목이 <한부모로 아이와 더불어 살기>인데요. 한부모로서, 혹은 한부모의 자녀로서 마주하는 일상을 담았어요. 아이가 5살이다 보니, 보육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노원에서 살다가 아쉽게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당시 새로운 어린이집에 하반기에 첫 등원을 하게 됐어요. 그니까 2학기에 갔죠. 근데 이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부모를 불러다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와. 주말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빠와 함께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어린이집에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가까운 양육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1학기에 하고, 아빠는 2학기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엄마 활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2학기도 곧 끝날 시기라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왜 어린이집에서 같이 안 노느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월요일

에 친구들과 함께 주말일상을 나누는데 제 아이만 토요일에 어린이집에서 했던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양육자를 엄마와 아빠로만 나눠놓으니까, 부모가 참여하는 활동임에도 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활동인 거예요. 그렇게 배제되는 아이들과 가족들은 차별을 겪고, 누적되는 경험들이 결국은 또 다른 단단한 고정관념을 만들잖아요. 애착형성이 잘된 양육자가 엄마라고 단정 짓는 것도 고정관념인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집 상담날, 가족활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양한 가족의 교육도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가족형태를 일일이 교육할 수준이 아니어서, 가족개념만 교육한다는 답이었고요. 그래서 타협 아닌 타협으로, 가족활동으로 변경하면 다양한 양육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양한 가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최후 변론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후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 그 어린이집 운영위였던 엄마랑 만나게 됐는데 그 엄마가 본인 아이도 같은 관할 유치원으로 옮겼다면서 제가 앞에서 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활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 사람이 저였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담한 날 이후에, 운영위 회의에서 저와 상담했던 내용이 공유되면서 가족의 날로 변경됐고, 같은 관할의 유치원도 엄마 아빠의 날이 가족의 날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구요. 말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희 '깨다'에서 실천하시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웃음)

진행자: '깨다' <언니들의 이야기>를 쓰고 난 후 변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은지: 일상에서 마주하며 평범하다고 생각한 일들에 이유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재구성하게 만드는 변화이고, 그 되새김이 변화의 출발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부모로서 첫 내딛음의 디딤이 되어준 '깨다'의 출발이 참 고맙습니다. 나와 같은 혹은 '깨다'의 목소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꼭 여성회나 '깨다'로 함께 하

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깨다'와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행자: '깨다'에 담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강은지: 김슬기 기자님이 쓰신 <언니들의 수다회>같이 <한부모들의 수다회>를 쓰고 싶어요. 한부모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은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나입니다.

진행자: 네, 제가 조은나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면, 조은나 기자님은 '깨다'에서 가장 다양한 글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간호에서는 <가정 내 여성폭력>에 대한 최경숙 활동가님 인터뷰 기사, 노원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참가기를 쓰셨고, 이번 2·3호 코로나 합본호에서는 일상 속 성차별과 세상을 바꾸는 학습 이야기를 쓰셨고, 십자말풀이도 만드셨어요.

진행자: '깨다' 참여동기는 무엇인가요?

조은나: 4년 전 노원여성회를 알게 된 후 새로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낯설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이번 '깨다' 잡지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자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동기부여가 된 것이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을 알기 전에 생각했던 부정적인 인식을 잡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이 나랑은 상관없는 특정 여성들이 하는 외침인 줄 알았거든요. 좀 '씨' 보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쏟아붓는 여성들만 하는 거라 생각했어

요. 그러다 노원여성회에서 여성주의세미나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반성하면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실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노원여성회 페미니즘 잡지 '깨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소개했듯이 '깨다'에 다양한 글을 쓰셨는데요,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재밌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은나: 5개의 글들이 다 성격이 달라 쓸 때마다 재밌었어요. 다 제 자식처럼 느껴지는 글들인데요. 그중 고민과 걱정이 다른 글들과 급이 달랐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번 2·3호 코로나 합본호에서 첫선을 보인 십자말풀이였어요. 작년에 '깨다'를 발간하고 나서 지역잡지를 보게 되면 구성과 디자인, 어떤 기사를 실었는지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본 지역잡지에 실린 십자말풀이를 했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런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깨다' 독자들도 저와 같은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상으로 '깨다' 기획회의할 때 제안했고 제가 맡아 준비를 했어요. 문제와 답을 구성하고 표를 만들어 배열을 하는 내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고 있을 독자들을 생각하니 십자말풀이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십자말풀이를 만드는 데 7시간이 걸렸지만 채감되는 시간은 7분처럼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전 벌써부터 다음 호에는 어떤 문제를 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깨다' 잡지 십자말풀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노원여성회 소모임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무려 5장이나 선착순 3명께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본인이 쓴 글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조은나: 제일 아쉬움이 남는 글이 있다면, 제 글들이 다 자식 같다고 했는데 그

중 제일 아쉬움이 큰 글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글이 창간호에 실린 가정 내 여성폭력에 대해 다룬 최경숙 선생님 인터뷰 기사예요. 다른 사람 인터뷰 기사를 참고도 하고 몇 날 며칠을 이것만 붙들고 쓰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걸 내 역량 밖의 문제구나'였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았어요.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좌절하는 타입이 아닌데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 그러지 못한 거 같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알고 글쓰기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올해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활동가의 글쓰기 수업이 화상으로 8번 진행됐어요. 글쓰기 수업이 절실하게 필요해 참여했고 그중 '인터뷰 기사 쓰는 법'을 배우면서 '깨다' 창간호 인터뷰 기사 쓰기 전에 이 수업을 들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강의 듣고 과제로 한 인터뷰 기사는 강사님이 잘 썼다고 칭찬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 쓰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잘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행자: '깨다' 제작을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처음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난 후 변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은나: 우선 가족과 지인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 놀라웠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세세하게 표현한 잡지가 부담 없이 페미니즘을 이해시킨 거 같아요. 특징인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내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를 글로 알게 되니 공감대가 형성된 거 같았어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돈도 안 되는 활동한다고 눈치 아닌 눈치를 받은 적이 종종(속삭이며, 아니 많아요) 있는데 잡지를 딱하니 내놓으니까 그래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 같고 친정엄마는 한편으론 자랑스러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깨다에 담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조은나: 너무 많죠. 담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도 많아요. 그중에서도 전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싶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봐야겠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여성회 밴드 및 블로그 운영, 뉴스레터 제작(2021년 예정)

네이버 밴드 : <https://band.us/@nowonwomen>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owonwomen>

뉴스레터 : 노원여성회 소식과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2021년부터 제작해 발송합니다.

○ 신청 : 박미경 노원여성회 회장 010-2888-6196

노원여성회 활동

언니들의 회원활동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 월례모임 '월간 숨'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



노원여성회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는 3·6·9·12월 분기별로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노원여성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노원여성회를 알고 싶은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자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관계는 어색함을 풀어주고 오랜만에 만나는 관계는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나눕니다. 2부에서는 노원여성회 활동을 공유합니다. 노원여성회가 카톡방, 밴드, 블로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활동을 공지하고 공유하긴 하지만 그렇게만으로는 노원여성회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즉시 물어볼 수 없어서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모두의 자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됩니다. '모두의 자리'에 참석하셨던 회원분들이 노원여성회가 이렇게 멋지고 많은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많이들 응원해 주셨고 지지도 해주셨습니다.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월레모임 '월간 숨'



2019년 4월 노원여성회 월레모임



2019년 5월 노원여성회 월레모임



2019년 7월 노원여성회 월레모임

‘월간 숨’은 이름 그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일하고 활동하는 일상에서 숨통 트이는 숨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그래서 월마다 기획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은 ‘천연제품 만들기-썬스틱 & 버블리 오일’, ‘나무도마 만들기’, ‘브로치와 컵받침 만들기’, ‘용산가족공원 나들이 및 식민 지역사박물관 관람’, ‘영이와 함께 떠나는 식도락 나들이’, ‘타로, 내 마음을 읽다?!’ 등입니다.

노원여성회 월레모임 ‘월간 숨’은 ‘모두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은 회원 대상이지만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성장활동

여성주의세미나모임, 태백산맥모임과 역사세미나모임, 회원성장캠프

여성주의세미나모임



2020년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2월 오리엔테이션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은 회원 학습 소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원여성회 회원 중 여성주의 학습을 하고 싶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성합니다. 더불어 찾아가는 성인권교육을 들은 후에 여성주의에 대해 좀 더 학습하고 싶은 분들이 노원여성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성주의 세미나는 단계별로 모임이 진행되며, 맨 처음에는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에 실린 강혜미 회원의 노원여성회 여성주의세미나모임 후기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페미니즘이 궁금한 너에게

작년 겨울 기억나? 친구들이랑 송년모임이 끝나고, 너랑 나랑 집 방향이 같아서 함께 왔었잖아. 그때 내가 페미니즘 잡지 '깨다'에 글을 싣게 되었다고 너에게 말하니, 네가 뭘 그런 것까지 하냐고 물었었지. 그때 멋들어진 논리로 네게 페미니즘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막연한 말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지. 나조차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 난 '페미니스트가 되겠다'라고 결심만 했지,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노원여성회에서 여성주의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참여했어. 뒤영켜진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찾기로 했지. 여성주의세미나는 총 6번으로 나누어 진행했어. 모임 인원은 5명이었는데, 각자 일정을 확인하니 우리가 모임 수 있는 시간이 주말 새벽인 거야. 어떻게 했냐고? 우리 매번 주말 새벽 6시에 만났어.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우리에게겐 통하지 않았지. (언제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

우리 모임의 교재는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 이야기>였어. 시간이 된다면 너도 읽었으면 좋겠어. 페미니즘 입문서로 양성평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거든. 책은 성별고정관념과 모성 이데올로기, 외모 지상주의와 성폭력, 노동문제까지 총 다섯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우리는 매 모임마다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나눴지. 첫 만남이었던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다섯 번의 세미나를 차례로 이어갔는데, 첫 번째 세미나에서 난 내 안에 있는 성별고정관념에 놀랐어.

생각해 보니 딸과 아들이 같이 뛰어다니면 나도 모르게 딸에게만 얹전히 있더라 했어. 남자는 뛰어노는 게 당연하고 여자는 얹전히 앉아서 놀아야 한다는 성별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야. 내 딸은 활동적으로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인데 말이야. 아이들이 가정 먼저 접하는 사회가 가정이지 않아. 그러니 가정에서부

터 성별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지. 그래서 세미나에 참여한 후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 바로 '여자애가 왜', '남자애가 왜'란 말이야. 여자나 남자로 아이의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고, 아이 그대로를 보려고 해. 부모인 나부터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도 더 넓게 세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

세미나 중 제일 기억에 남는 모임이 있다면, '엄마의 희생은 늘 아름다운가'를 주제로 한 시간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모성은 본능이라고 생각하잖아. 나 또한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지. 아이를 낳은 후 생각이 달라졌지만 말이야. 모성의 본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과 기준이 달라. 그런데 사회에서는 획일화된 모성만 강요하지. 당장 올해만 해도 그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노동은 온전히 엄마들의 몫이잖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온전히 엄마들의 죄책감으로 돌아왔지.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는 엄마의 일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누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 외에도 우리는 여성의 몸과 성, 일터의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를 했지.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나에게 대해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

미나야. 난 몸에 작은 가시를 가진 채 태어났어. 여자라는 가시, 아니 여자라면 응당 이래야 한다는 세상의 강요된 여성이라는 가시 말이야. 내 몸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시도 자라게 되었지. 가시가 있는 곳이 쏠려 가끔 따끔했지만, 아프진 않았어. 태어날 때부터 그곳은 가끔 따끔거렸기 때문에 그게 아픔이란 걸 몰랐던 거지. 하지만 이젠 알게 되었어. 따끔한 건 아픈 거고, 그건 가시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슬프냐고? 아니. 난 오히려 기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서서히 가시를 내 몸에서 빼게 되면 난 자유로운 몸이 될 테니 말이야. '여자니까, 여자라서, 여자는'이라는 가시를 빼고 나면 진정한 내가 될 거야. 본연의 내가 보이겠지. 이게 내가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이유야.

태백산맥모임과 역사세미나모임



2020년 노원여성회 태백산맥모임
34팀 오리엔티어링

우리 사회 전반이 연결되어 있기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을 <태백산맥>을 통해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있게 한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 중에서도 특히 지워진 역사,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현대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원여성회는 당시 민중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민중들의 역사를 배웁니다. 10권을 읽는 게 어렵지만 함께 읽기에 가능합니다. 다 읽고 나서는 별교로 태백산맥 기행도 떠납니다.

<태백산맥>을 학습하고 나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학습하는 역사세미나모임을 진행합니다.

회원성장캠프



2019년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는 2018년에 양성된 노원여성회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가들 중 23명이 노원여성회에 가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019년 당시 1회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는 1강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서울여성회 역사로 본 여성의 삶’, 2강 ‘역사를 통틀어, 이름은 여자였다-민주주의와 인권을 앞당긴 여성운동’, 3강 ‘두고 보시오, 이제 여자들이 산을 움직일 테니-서울여성회 여성주의를 말한다’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노원여성회 회원성장캠프는 회원들이 서로 만나 사귀고, 각자의 성장을 만드는 시간으로, 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나’를 찾고,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는 새로운 꿈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노원여성회 활동

언니들의 소모임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언니들의 그림책, 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수수한 언니들(2021년 예정)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노원여성회 소모임-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은 매월 1회 여성인권을 다룬 책과 영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도래하면서 기본은 오프라인 모임이지만 온라인으로도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모임지기 : 박미경 010-2888-6196

언니들의 그림책



노원여성회 스토임-언니들의 그림책

‘언니들의 그림책’은 매월 첫 번째·세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 더숲에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참석 못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참석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모임에 참석하면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선착순 마감의 가장 빠른 인기 있는 소모임입니다.

○모임지기 : 김슬기 010-3108-2979

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노원여성회 스토임-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매월 입이 즐거워지는 시간! 바로 ‘영이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사는 동네인데도 나만 모르는 맛집이 참 많다는 걸 이 소모임

으로 알게 됐습니다. 모두의 입맛에 맞는 만족스러운 맛으로 보답하고 다음 달 메뉴가 무척이나 궁금하고 설레게 하는 모임입니다.

○모임문의 : 조은나 010-5275-1470

수수한 언니들(2021년 예정)

“사부작 사부작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모이세요!”

‘수수한 언니들’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내가 강사가 되고 내가 학생이 되는,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모임지기 : 조은나 010-5275-1470

언니들의 네트워크

노원구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노원공동행동,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우리만나



2018년 노원구시민사회 NPO지원센터 노원이음

‘네트워크’는 그물이라는 뜻의 ‘Net’과 작업을 뜻하는 ‘Work’의 합성어로,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거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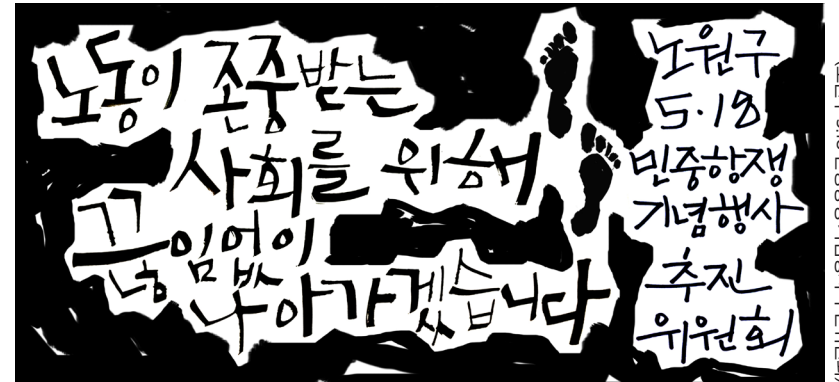
그러면 ‘언니들의 네트워크’는 왜 필요할까요?

노원여성회는 지역과 여성, 성평등의 만남이 이뤄지는 시공간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나누며 많은 주민에게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에서 얻기도 합니다. 또 지역의 여러 활동에 동참·연대하면서 지역사회에 노원여성회를 알리기도 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을 다지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노원여성회의 고유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활동

을 통해 더 멀리, 더 깊게, 더 빨리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모이고 커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노원여성회는 활발하게 ‘언니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합니다. 노원여성회는 지역 내 다양한 모임, 단체 등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2020년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노원구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노원여성회는 마을정치캠프 ‘액션’, 함께노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2020년이 5.18민중항쟁 40주년임을 알리고 5.18민중항쟁의 정신과 의의를 폭넓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원구 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5월의 광주를 마주하다 ‘오마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교육, 현수막 게시 및 거리캠페인, ‘기억하겠습니다, 5.18!’ 영상 제작, 팟캐스트 제작, 광주기행 등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역주민들과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노원구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역사스터디모임 ‘리멤버’로 역사학습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2019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연대활동



2020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연대활동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은 서울시 동북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단체, 여성단체, 여성주의모임 등의 젠더의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젠더의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동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2018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연대활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2018년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를 지지하고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모임입니다. 노원여성회는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당연히 시민모임에 함께 합니다. 많은 시민과 함께 교사의 위력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에 맞서며 학교의 담장을 넘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2018년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새봄인사회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노원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주민, 모임 및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량을 함께 모아서 확대하고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민간의 협력 속에서 참여 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원공동행동

노원여성회는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이 모여 사회적 이슈나 정세 등에 대응하며 행동하는 노원공동행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원공동행동과 함께 하며 노원여성회의 사업 및 활동 등을 공유하고 성평등한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하며 살맛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성차별이 없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근간에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여성회는 인권이 숨 쉬는 노원을 희망하며 인권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인권에 초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성인권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만나

우리만나는 노원구에서 시민교육을 하는 여러 단체가 모여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교육을 공유하고 건강한 시민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노원여성회는 우리 만나와 함께 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곳곳에서 그런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원여성회를 Pick 한 이유!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와 함께 해요!

강은지

현재만을 살아가는 시간에서 벗어나 '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혹은 '타인'에서 '이웃'으로, 다양한 만남의 순간 노원여성회는 우리로서 함께 했습니다. 한걸음, 한발자국씩 같이 남기며 평등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우리들을 기대해봅니다!

김미연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원-원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당당함!
여-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성-성평등한 사회! 노원여성
회-회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노원여성회 활동에 참가하면 어디선
가 힘이 솟아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성미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성대통령이 나오고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성평등 인식이 부족해 피해 보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많아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마침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 단체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나의 선택에 후회없이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김지연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단함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만의 투덜거림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춘애

'고마워요, 노원여성회'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열어준 노원여성회는 참으로 고맙고 소중한 곳입니다. 성인권교육을 통해 나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 인식하게 되었고, 노동인권교육을 받으며 노동 현실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분명, 삶을 깨우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노원여성회를 알기 전(前)과 후(後)의 삶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서미화

아직도 남편이 우선이고 아이가 우선입니까? 오롯이 다다워 지는 곳! 노원여성회! 나는 오늘도 나를 찾으러 그곳에 간다!

이지희

어렸을 때 나는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뭔가 '오빠'라는 존재는 힘이 세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긴 것 같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같이 울다가 웃으며 힘을 주고받는 '언니'라는 존재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언니들은 날 당당하게 만들고, 누구의 엄마, 딸, 아내를 넘어 그냥 나로 살게 한다. 나에게서는 이렇게 내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언니들이 있다. 더 이상 오빠는 필요없다.

(여기서 오빠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여성도 여성의 힘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한 뜻을 밝히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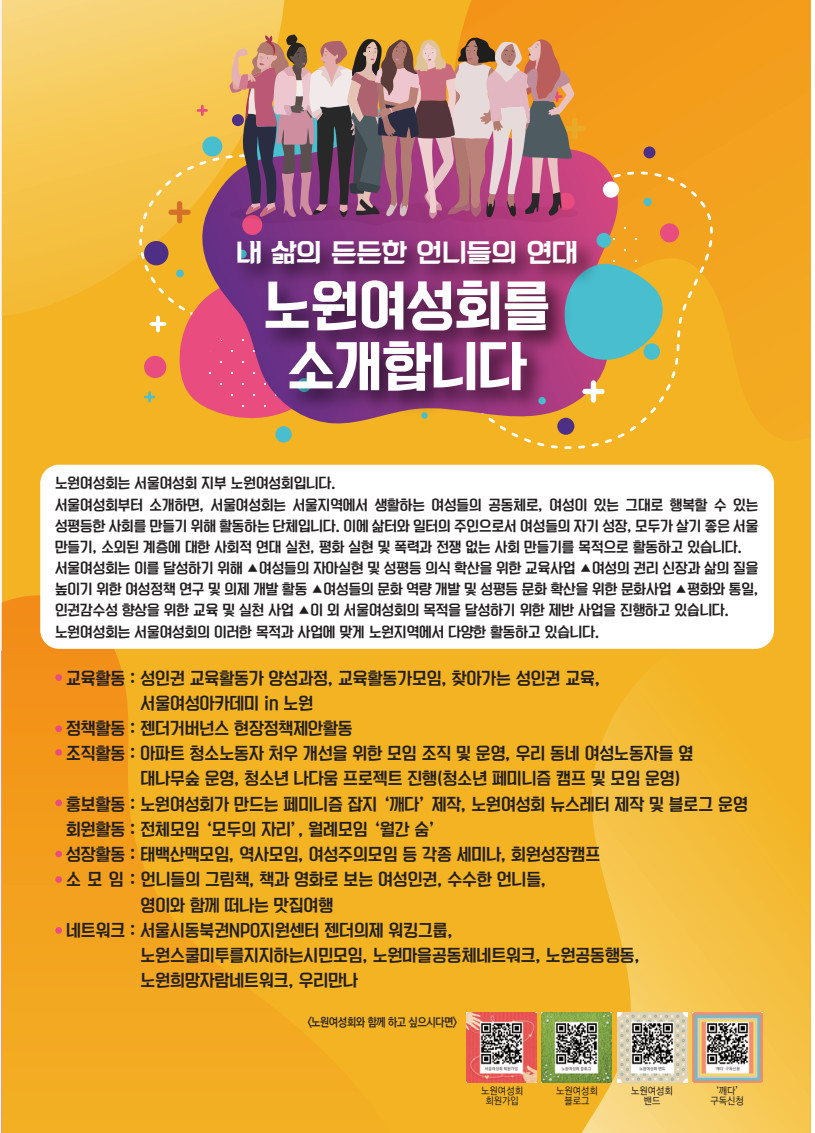
노원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여성회! 그동안 간혀 있던 모성 이데올로기와 윗세대로부터 몸에 자연스럽게 밴 성별고정관념은 노원여성회 학습과 모임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 진정한 삶이 노원여성회를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된다는 몇몇의 노원여성회 회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간증인 듯한 고백을 듣고 나면 종교집단에서 왜 전도를 하고 가입을 유도하는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동지애를 느끼며 나와 같은 삶의 주체가 되어 당당한 삶을 살기 바라면서 그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본다. 학습과 모임으로 스스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릴 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노원여성회. 언제나 내 편이고 나의 성장을 함께 해주는 언니들! 노원여성회를 알게 되어 이번 생은 절반은 성공이다.

임현주

누구의 엄마, 아내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내가 되어가는 곳

최정아

성인권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노원여성회는 교육을 통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에게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의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세요! 나와 미래를 바꿔 줄 노원여성회!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를 소개합니다**

노원여성회는 서울여성회 지부 노원여성회입니다.
서울여성회부터 소개하면, 서울여성회는 서울지역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여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에 삶터와 일터의 주인으로서 여성들의 자기 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 실천, 평화 실현 및 폭력과 전쟁 없는 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자아실현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책 연구 및 의제 개발 활동 ▲여성들의 문화 역량 개발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평화와 통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천 사업 ▲이 외 서울여성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여성회는 서울여성회의 이러한 목적과 사업에 맞게 노원지역에서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교육활동 : 성인권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교육활동가모임,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서울여성아카데미 in 노원
- 정책활동 : 젠더거버넌스 현장정책제안활동
- 조직활동 : 아파트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 조직 및 운영, 우리 동네 여성노동자들 열 대나무숲 운영, 청소년 나다움 프로젝트 진행(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및 모임 운영)
- 홍보활동 : 노원여성회가 만드는 페미니즘 잡지 '깨다' 제작, 노원여성회 뉴스레터 제작 및 블로그 운영
- 회원활동 : 전체모임 '모두의 자리', 월례모임 '월간 숲'
- 성장활동 : 태백산맥모임, 역사모임, 여성주의모임 등 각종 세미나, 회원성장캠프
- 소 모 임 : 언니들의 그림책, 책과 영화로 보는 여성인권, 우수한 언니들, 영미와 함께 떠나는 맛집여행
- 네트워크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젠더의제 워킹그룹, 노원스쿨미투를지지는시민모임,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노원공동행동, 노원희망자랑네트워크, 우리만나

(노원여성회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원여성회 회원가입, 노원여성회 블로그, 노원여성회 밴드, '깨다' 구독신청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내 삶의 든든한 언니들의 연대 노원여성회

지은이 노원여성회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아우르네 2층

전화 02-906-2018

이메일 info@dbnpo.kr

홈페이지 www.dbnpo.kr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